

박선호 차관, “그린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동력” 강조

29일 사군구 간담회서 그린뉴딜 건축물 분야 지자체 협력추진방안 논의

-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월 29일(월)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서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인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·군·구 단체장 영상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 -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주재한 17개 시·도 부단체장 간담회(6.19) 이후 기초자치단체와도 그린리모델링 협력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에 고성능 단열·창호, 환기시스템, 고효율 설비, 신재생·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 성능·실내공기질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으로,
 - 정부는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, 보건소, 의료기관, 공공임대주택 중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, '20년 제3차 추경안에 2,352억 원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.
- 박 차관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“그린리모델링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‘성장’과 ‘환경’ 두 가치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그린뉴딜 대표사업”임을 강조하며,
 - “국토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”고 밝혔다.
 - 또한,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“기초 지자체의 추진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자체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, 사업에 적극 참여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- 아울러, “지자체별로 주거복지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줄 것”을 요청하고,
 - “국토부도 코로나-19 피해를 입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주거급여, 공공임대주택 긴급 공급, 월세자금 대출도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- 아울러 “코로나-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,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앙 정부와 광역·기초 지자체 모두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덧붙였다.

2020. 7. 2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□ **개요**

- (일시/장소) '20. 7. 2(목) 14:00~16:00 / 국토발전전시관 505호(영상)
- (참석자) 1차관님(주재), 19개 시·군·구 단체장(영상),
건축정책관, 주거복지정책관,
녹색건축과장(사회), 주거복지정책과장, 도시건축사업단장(LH)
- * (강원)춘천, (경기)성남, (경남)창원, (경북)김천·경산, (광주)남구, (대구)수성구, (대전)서구, (부산)사하구,
(서울)양천구, (울산)북구, (인천)강화, (전남)순천·목포, (전북)완주·전주, (제주)제주시, (충남)천안, (충북)청주

□ **논의 사항**

-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(녹색건축과장)
- 주거복지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*(주거복지정책과장)

* 주거복지센터·지역건축안전센터 지자체 확산,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지원 등

□ **세부 진행일정**

시간	내용	비고
14:00 ~ 14:05('05)	개회 및 참석자 소개	
14:05 ~ 14:10('05)	그린리모델링 홍보영상 시청	
14:10 ~ 14:15('05)	인사말씀	1차관님
14:15 ~ 14:30('15)	그린 리모델링 사업 필요성	명지대 이명주 교수
14:30 ~ 14:40('10)	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방안	녹색건축과장
14:40 ~ 14:50('10)	지자체 사업 지원방안	LH 도시건축사업단장
14:50 ~ 15:00('10)	주거복지 협조 사항	주거복지정책과장
15:00 ~ 15:55('55)	자유토론	
15:55 ~ 16:00('05)	마무리말씀	1차관님